

예술의 허세와 개념의 비판



홍 경 안 역
시시일각

2023년 스웨덴의 한 전시장. 스위스 출신의 개념미술가 로만 시그너(Roman Signer)는 모래를 채운 붉은색 플라스틱 양동이 열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맨 아래 양동이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구멍 사이로 가느다란 모래가 흘러나오자 지지력을 잃은 양동이 탑은 서서히 기울었고, 이내 힘없이 무너졌다. 작가는 이 과정을 ‘시간적 조각’, ‘액션 조각’이라 명명했다.

양동이는 물리 법칙에 따라 쓰러졌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관람객들은 일시성과 유동성을 통한 예술의 본질 운운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비평가들은 ‘시간의 비가역성’,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질서의 붕괴’와 같은 거창한 수식어를 갖다 붙였다. 그러자 일개 자연현상은 고도의 사유로 둔갑했고 자칭 ‘세련된 빨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거장의 개념으로 격상되었다.

모래 양동이 사라는 오늘날 미술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개념의 비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이 제공하는 미적, 실

질적 경험은 극도로 축소된 반면 그것을 둘러싼 해석의 몸집만은 과도하게 팽창한 상태를 말함이다.

예술은 때로 ‘형이상학적 허세’로까지 나아간곤 한다. 2021년, 이탈리아 작가 살바토레 가라우(Salvatore Garau)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투명한 조각’을 우리 돈 2천여만 원에 판매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조각(바닥에 테이프를 표시된 빈 사각형 구역)이 진공 상태의 공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으며, 물질성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개념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 작업이 눈에 띄는 건 예술을 감각과 경험의 영역에서 떼어내어 ‘믿음’의 문제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일부 비평가들이 가라우의 작업을 ‘고도의 지적 실험’으로 옹호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이며 과거 이브 클라인(Yves Klein) 등의 선배 작업을 답습한 극단적 촌극이라 평가 절하했다. 나아가, 허풍과 허세 가득한 작업들이 예술로 통용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먼저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사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이미 오래 전 의미 없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현대미술의 구조를 ‘예술의 음모(The Conspiracy of Art)’라 했다. 여기서 음모란 미술시장, 미술관, 비평, 학계가 야합해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고귀한 예술로 승격시키는 네트워크다. 이 구조 안에서는 그것이 어떤 제도 안에 편입되었는지가 우선한다. 작품의 질이나 밀도가 아니다.

과거의 예술은 형식적 완성도, 미적 경험의 밀도, 감각적 설득력이라는 내재적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다. 그러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이후, 이러한 기준들은 급속히 ‘낡은 미학’으로 밀려났다. 대신 그자리를 개념과 맥락, 그리고 제도적 승인여부가 대체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선택지가 아니라 당위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술이 반드시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작가의 선언과 제도의 수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관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동시대미술을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순간, 예술은 스스로를 비평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어 올린다. 특히 제도가 모든 것을 예술로 승인할 수 있다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오늘날의 미술이 진지하게 짚어 봐야할 자문이다. /미술평론가

오늘의 운세 1월 21일 (음 12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작품이 당첨되어 경사 난다. 48년생 건축물 수주가 작더라도 고맙게 여겨 잘 꾸민다. 60년생 부모님께 불평 말고 용돈 좀 챙겨드려라. 72년생 최씨 귀인이 일을 해결. 84년생 상복 수이니 검은 옷을 챙겨둬라.



37년생 경제가 어려워 고민이나 며칠 지나 적게라도 해결된다. 49년생 헤어진 연인 생각에 슬퍼 마라. 61년생 들뜬 마음으로 소망하다 과다 지출. 73년생 좋은 일이 있으나 언제나 형제는 뜰어만 간다. 85년생 핑크색에서 행운을.



38년생 다리에 힘이 없으니 계단 왕래 때 조심. 50년생 음주는 정말 나쁜 행동. 62년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석하라. 74년생 용이 물이 없으면 아무리 기다려 마라. 86년생 직장 다니는 것이 즐거움인 것을 모르니 한심.



39년생 자녀의 해외로 근무지 신청은 이루어진다. 51년생 지체가 새로운 일에 빛을 발한다. 63년생 자신감과 실력으로 밝아진다. 75년생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현재 충실. 87년생 우물쭈물하는 동안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40년생 다이어트보다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했다. 52년생 주변구설만 들지 마라. 64년생 환문 공부로 상승하도록. 76년생 신용 없는 사람과 상대하지 마라. 88년생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



41년생 가벼운 인정에 이끌리는 투자는 유의를. 53년생 강남이나 강북이나 한 뼘 차이인데. 65년생 김씨 직장 선택에 부족한 업무의 일을 도와준다. 77년생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89년생 쥐 원숭이띠와 돈거래 말도록.



42년생 객기부리다 싸움으로 번진다. 54년생 욕심이 나더라도 순리에 따라서. 66년생 쓸데없는 물건들은 운을 저조하게 한다. 78년생 사려 깊은 처신을 해야 기정을 잃지 않는다. 90년생 뒤늦게 사랑에 안주하려 들다가 쪽방 신세가 된다.



43년생 새벽부터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 조심. 55년생 과거의 사연에 의미 부여는 고뇌의 연속이다. 67년생 이웃 직장보다는 현재 직장에 충실. 79년생 삼재이니 방생을 권해본다. 91년생 재물의 쓰임이 많아지지만, 수익도 많아진다.



44년생 자식이 결혼 날을 잡게 되니 경사가 만발하다. 56년생 묻혀있던 실력이 발휘된다. 68년생 비교하고 후회하는 자책은 앞날에 방해가 된다. 80년생 돈 냄새를 맡고 오는 감언이설에 주의. 92년생 속 숙였던 두 가지 일이 해결된다.



45년생 천덕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영업은 이익. 57년생 파마보다는 생머리가 어울린다. 69년생 괜한 구설은 오래가지 않으니 힘내라. 81년생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93년생 치킨과 맥주로 스트레스를 풀고 미래를 재도약



46년생 급여가 작아도 취직하라. 58년생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여라. 70년생 이 글을 읽은 뒤부터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성공해보라. 82년생 운전 시 집중하다 건물목에서 차량 주위. 94년생 옷 작품이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얻는다.



47년생 복권도 사야 당첨의 기회가 오는 것. 59년생 사물의 이치를 몰라도 신용이 있으면 절반의 성공. 71년생 4시경 사고에 유의. 83년생 욕심내다 손해수서 사서 고생. 95년생 송사가 해결되고 근심이 해소되니 조상 덕으로 직장에 충실하라.



김상회의四季점과 복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는 것에는 여러 관점과 방법이 있었지만 필자는 직업 의식상 오지 않은 미래예측에 관심이 지대하다. 천지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피흉귀길에 관심이 많고 고대 문명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점占치는 일이다. 따라서 제정일치의 사회였고 미래예측의 노하우를 아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으며 세속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발전하고 진화되면서 제정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근대문명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제정의 분리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우주까지 의식이 확장된 오늘날에도 점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왜냐! 미래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며니즘은 긍정과 부정의 인식이 공존하는 가운데 또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팁을 주기도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덕무의 저술을 모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도 보자면 쌀 점을 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쌀占을 치는 것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며 더 고대로부터는 거북이 등 점은 물론 서양에서는 크리스탈 볼이나 점성술 등 나라와 종족마다 다양한 점 치는 기법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 모두가 민족마다 공통으로 지닌 문화적, 관습적 인식에 기반한 것들이다. 또한, 뭔가 걱정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역시 나름의 비법을 발휘하여 액막이 방법들을 쓰게 된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어 음력 정월은 한 해의 안녕을 위한 최적기다. 일 년 신수를 점쳐 보고 길흉의 예측 정도에 따라 보통은 음력 정월 보름 이내에 액막이의 일종인 ‘홍수막이(홍수맥이)’ 등의 처치(?) 의식을 행하곤 한다. 이런 행위를 두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하단 얘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알맹이 빠진 ‘국대 AI’, 누구를 위한 패자부활전인가



기자수첩
김 서 현
(IT부)

대한민국 AI 주권을 지키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가 공허한 울림만 남기고 있다. 정작 판을 키워야 할 대기업들은 줄줄이 보따리를 쌌고, 그 자리를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다. 겉보기엔 ‘스타트업의 반란’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만든 ‘흥행 참패’의 기록일 뿐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대’급 후보들의 이탈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C AI 등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패자부활전 불참을 선언했다. 한 번의 탈락으로 낙인찍힌 ‘기술력 부

족’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도전하기엔, 정부가 제시한 ‘물’이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독파모의 가장 큰 결함은 ‘프롬프트 크래치(From scratch, 바닥부터 개발)’에 대한 강박이다. AI 석학 조경현 교수의 비판처럼, 기술의 성능과 활용도보다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효율성과 속도전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만 ‘독자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몰되어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론랩스 같은 실력과 스타트업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과 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이미 4개월 이상 앞서나간 기존 3개 정예팀

과의 격차를 후발주자가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똑같은 기간을 주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에 필요한 건 공정한 시험 시간이 아니라 유연한 지원과 명확한 로드맵이다. 특하면 바뀌는 가이드라인과 ‘패자부활전’이라는 급조된 규칙은 기업들에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정부가 임명장을 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될 때 자연스럽게 붙는 칭호다. 지금처럼 관료적 잣대로 줄을 세우고, 기술의 본질보다 형식적 독자성에 매몰된 프로젝트가 계속된다면 ‘국대 AI’는 그저 정부 보고서 속의 박제된 성과로 남을 뿐이다. 알맹이가 빠진 패자부활전에 박수를 보낼 기업이 얼마나 될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seoh@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 3650

결란스도쿠110

중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7	8	9	6	8	1
2	8	6	1	5	7	9	
1	6	9	8	7	2	4	8
8	1	9	7	2	6	9	8
6	9	2	1	8	8	7	2
8	7	2	9	5	2	1	6
9	2	8	1	6	8	1	9
7	9	1	8	9	2	6	8
2	8	6	9	1	7	9	2